大邱日報

2007년 07월 03일 004면

지방의회 중계석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자기부상 열차 유치실패 대구시장 발뺀탓 아닌가

권영세 부시장 내부문제 아니라 인천에 밀려서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원)는 2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했다.

차영조 의원은 "자기부상열차 노선 최종확정 단계에서 한 대학 교수의 투서 문제, 건설업체와의 계약문제로 인한 내부반발, 시장이 결정단계 전부터 단점을 예로 들면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이 유치실패에 원인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권영세 행정부시장은 "외부에서는 유치의지가 약하고 막판 총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지만 평가에서 유치의지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노선과 부지 등 인천시가 가진 조건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양명모 의원은 "대구시가 중앙정부를 향해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작 시의 8개구군간 불균형은 도를 넘어 가고 있다"며 "건설방재국의 주요 도로사업 16개 중 12개가 달서구와 달성군에 편중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수성구 쪽으로 몰리는 등 예산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부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계속사업이나 실제 수요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나름의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돈규 의원은 "대구가 동서를 잇는 도로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남북간 도로가 미흡하고 도로 간의 연결이 좋지 않다"며 대구시의 도로망 문제를 지적한 뒤 남북간 도로 연결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동희 의원은 "12억2천600만원이 과오납 반환 됐다"며 "공무원 착오로 인해 많은 돈이 잘못 집행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영은 박돈규 차영조 의원은 "담장허물기와 관련해 도난과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행정국이 문제방지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최일영기자 mc102@idaegu.com